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벤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이종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국가 재건을 위하여(II)

(느헤미야 9장 1 - 37절)

성령 운동의 첫 번째 증거는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게 하는 각성된 양심입니다. 그 후에야 부흥이 옵니다.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에는 이와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 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었습니다(8장).
- ② 죄를 슬퍼하고 회개했습니다(9장).
- ③ 그 결과 삶에 변화가 왔습니다(10장).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8:9). 백성들이 슬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친 결과입니다. 에스라가 모세 율법을 읽었을 때 백성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면전에서 죄의식을 갖게 되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성일이므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기뻐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눈물을 멈출 것을 말했다(8:12),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읽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세 율법책의 기록대로 7월 15일로부터 22일까지 장막절을 지키고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에서 그들은 특별히 금식하고 굶은 배움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9:1 - 2).

1. 느헤미야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그들의 슬픔을 이용하지 않았다

느헤미야는 이때를 부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인간의 약한 심리를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슬퍼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의 강요나 조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을 뿐, 자신의 감정에 도취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를 할 경우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성일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참회의 날이 지난 후 레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활동하심의 위대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9:5).

느헤미야가 공적 참회를 3주 이상 연기시켰지만 결국 회개운동은 일어났습니다. 이 회개운동은 전체적이고 하나님께 바로 한 것입니다.

2. 참된 고백과 회개

“이 날에 낮 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죄로부터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없는 개인과 국가의 도덕적 진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영적, 도덕적으로 부흥될 때 변형된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와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죄를 위한 기도도 해야 합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3절).

이 회개운동에 2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연결됩니다.

백성들은 낮 1/4 동안은 성경을 읽고(초막절엔 3시간, 신년 초일엔 6시간 낭독), 낮 1/4 동안은(3시간)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회개의 관계를 조화 있게 실천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없는 개인과 국가의 도덕적 진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영적, 도덕적으로 부흥될 때 변형된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도, 응답함도 없는 자는 죄를 슬퍼하거나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설교할 때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들은 자기 죄와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죄를 위한 기도도 해야 합니다.

3. 레위인들의 간절한 기도

레위인들의 간절한 기도는 백성들의 참회 기도를 이끌어 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2절).

백성들은 먼저 참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많으심을 찬송하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또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일어나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했습니다(5절). 즉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레위인의 기도는 다음의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 ① 하나님의 창조사역(5 - 6절)
- ② 이스라엘 역사를 조명(7 - 31절) - 아브라함의 소명(7 - 8절)부터 선지자들의 사역을 생각
- ③ 오늘의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32 - 37절)

느헤미야 때에 레위인들의 기도는 모범적 회개기도입니다. 결국 이 때부터 영적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국가적으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이 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국의달 특집-신앙의 선배를 찾아서

원수까지 사랑한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산돌 손양원 목사님은 자식을 죽인 원수를 오히려 양자로 삼는 극진한 사랑을 실천한 주인공이다.

1902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손 목사님은 24살인

1926년 진주의 경남성경학교에 입학하면서 신학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손 목사님은 5살 위인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 그의 로마서 강해를 들으며 신앙성장에 큰 도움을 받았다.

1939년 전남 여수시 소록도에 있는 나병환자들의 보호시설 애양원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한 손 목사님은 이듬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해 여수경찰서에 구금됐다가 8·15 광복으로 출옥한 뒤 1946년 목사가 됐고, 다시 애양원 교회로 돌아가 나병환자를 돌봤다.

1948년이 되자 여수 지역에는 좌익반란군과 정부군간의 충돌로 '여순 사태'가 발생했다. 손 목사의 큰 아들 '동인'은 당시 사범대학에서 기독교학생회장을 맡았는데 평소 동인이 공산주의의 맹점을 지적하던 것을 못 마땅히 여겼던 좌익계 학생들은 10월 21일 손 목사의 두 아들 동인, 동신 형제를 끌어내어 만신창이가 되

도록 폭행한 뒤 무참히 총살하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손 목사님은 그러나 일주일 뒤 애양원 교회에서 거행된 영결식장에서 다음과 같은 9가지의 감사를 드렸다.

1. 나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에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 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3. 삼남 삼녀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4. 또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5. 예수 믿다가 외석종신하는 것도 큰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요. 감사합니다.
6.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7.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 이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

와 신애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게다가 손 목사님은 이 자리에서 두 아들 죽인 자를 사형장에서 빼내서 아들로 삼겠다는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해 장례식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얼마 후 동인, 동신을 죽인 학생은 사형되기 직전에 극적으로 구출되었다. 손 목사님은 그 학생을 아들로 받아들여 부산 고려고등성경학교에 입학시켜 전도사로 키워냈다.

2년 뒤 6·25사변이 일어나자 주위에서 손 목사님에게 피난을 적극 권유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라는 말만 하며 사실상 순교를 각오했다. 50년 9월 13일 애양원교회에 들이닥친 공산군에 끌려간 손 목사님은 15일동안 감금된 채 미국놈 앞잡이라는 이유로 몰매를 맞았다.

9월 28일 서울 수복 후 공산군이 후퇴할 처지가 되자 손 목사님을 여수에 한 과수원 속으로 끌고가 총살을 했다. 만 48세의 짧은 생을 순교로 마감한 손양원 목사님, 실로 주님의 계명을 말씀 그대로 복종하며 실천한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사에 길이 빛나는 인물로 기억될 것이다.

김민철(편집부)

홍해작전

홍해에 부르짖음

김용숙 권사(살림권사회장)



현충일을 기해 시작된 2005 홍해작전 새벽기도회는 저나 우리 권사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감동입니다.

2주간의 하와이 말씀선포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홍해작전 강단에 서신 이종운 목사님은 풀숭이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원근각처에서 달려와 예배당 1,2층을 가득 메운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진실로 사랑과 은혜충만한 광경입니다.

이 뜨거운 열정의 기도들이 우리 민족의 복음화로 이어져 피흘림이 없이 복음으로 남북통일이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주체가 될 것이란 확신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홍해라는 커다란 시련의 바다를 무사히 다 건너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의 모든 기도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인애 (고등부)



고교 3학년인 저는 고1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홍해작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께서 깨울 때는 정말 귀찮고 일어날 엄두도 나지 않아 신경질까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꼭 나가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마지못해 따라나섰던 제가 고2가 되면서부터는 홍해작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제가 먼저 일어나 부모님을 깨우기도 하고 친구들에게도 함께 나가자고 권하기도 합니다.

대입 수험생으로서 맞은 2005년 홍해작전에 저는 특별히 개인 기도제목 몇 가지 정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두 번째는 교회에 더욱 잘 나오는 것, 세 번째 가정을 위해, 네 번째는 고등부와 교회를 위해,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두가 승리하며 이번 홍해를 건너길 기도합니다.

6월 성경 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 5득: 김경래 집사(13교구)
 - 2득: 하영수 장로(2교구) 이운영 권사(5교구) 김범상 집사(8교구) 박정옥 권사(8교구)
 - 1득: 박연경 학생(1교구) 김규성 집사(10교구) 김동재 집사(13교구) 김미경 집사(13교구) 김은애 학생(14교구) 김우숙 권사(14교구) 이신애 집사(14교구) 최죽희 권사(14교구)
- 이상 13명

제18회 강남노회 아동부 연합회주최 5월 어린이 대회수상

제18회 강남노회 아동부 연합회 주최 5월 어린이 대회에서 서울교회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 성경교사: 은상-이지원 (초등부)
- 성경암송: 금상-박지원 (초등부) 은상-김정훈(유년부)
- 구연동화: 동상-김민선(유년부)
- 글짓기: 금상-김기남(초등부) 은상-권아윤(유년부) 김미리(초등부) 동상-권수연(초등부) 김나영(초등부)
- 그리기: 은상-최지원(초등부)

홍해작전

삶을 역전 시킨 홍해

나기태 집사(12교구)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인생역전을 꿈꾼다. 구만리 같은 인생의 역전이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말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인생역전이 있다. 로또 숫자 6개를 우연히 짜 맞추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반전이.

첫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인생역전이고,

둘째로는 구원의 인생역전 만큼 극적이진 않지만, 고난과 고통이 펼쳐진 절망의 망망대해를 멋지게 갈라주신, 주님 사랑으로 인한 인생역전이다.

그 절망의 마지막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 짜릿함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매일 새벽 서울교회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밀려든다. 가정의 홍해, 자식의 홍해, 경제적 홍해, 세상사는 어려움의 홍해, 심지어 국가의 그 깊은 홍해를 끌어안은 성도들이 몰밀 듯 밀려들어 온다.

그리고 남에게는 말 못할 아픔을 주님만이 끌어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들은, 주님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새벽에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교회로 달려오는 주의 백성의 간절함을 보신 주님께서, 그 앞의 홍해를 아니 갈라주실 것인가. 이렇게 서울교회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바다가 갈라지고 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3>

홍해작전의 기도

홍해를 건너는 어린이들...

김성은(초등부 5)

예수님!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싫고 힘들었지만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나의 기도제목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에 홍해작전은 정말 기쁘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초등부 친구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홍해를 함께 건너 볼래요.

김성경(유년부 3)

예수님! 엄마가 새벽에 나를 깨우며 교회 가고 할 때 잠이 많이 와서 싫다고 하면서 짜증 부리며 따라왔지만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나의 기도 "우리 큰아빠, 큰엄마" 교회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들어주심을 믿고 매일 매일 새벽기도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이갑연 집사(2교구)

할렐루야! 홍해작전을 통해 승리의 기쁨을 저희 가정에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피곤

과 잠으로 가득 찬 저희 가족을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케 하신 주님.

이 홍해작전을 통해 시대 형제들 구원 문제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입으로 외우기만 하던 사도신경의 깊은 뜻을 가슴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딸들의 홍해작전 승전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청년부 총동원 전도주일에 초대합니다

서울교회 청년부는 6월 26일 3부 예배 후 601호에서 '총동원전도주일' 행사를 갖습니다.

그 동안 포대를 만나고 싶으나 어색하고 쑥스러워 청년부를 찾지 못했던 분, 보다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길 원하는 분, 아는 사람이 없거나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청년부 문을 두드리지 못했던 분... 이런 청년들을 모두 모두 초대합니다.

청년부는 미혼의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아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포대와 교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나길 원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청년부는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이번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 26일 3부 예배 후 601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오정식 목사(청년부 지도)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0일(월) 서울여대 이사회, 23일(목) 복음신앙동지회에 참여한다.
- 이사: 최순례 성도(9교구) 남양주시 토평동 중흥A. T. 031) 592-5414
이관규 장로 이순영 권사(10교구) 성동구 마장동 현대A. T. 2291-5473
- 득남: 전훈덕 성도 정혜승 성도 가정(8교구) 6월15일
- 개업: 한상준 집사, 임명숙 집사(11교구) (주) 오투프라이즈 서초구 잠원동 금정빌딩3층 T. 1544-3144, 6748-8500
- 주간식당 봉사: 권사회(6월19일) 빌립남선교회(6월26일)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5홍해작전에 은혜받고 계속 승리하도록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세계를 교구로 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되도록
4. 서울 암송 · 필사성경 제작이 순조롭도록
5. 북한의 핵문제 전쟁없이 해결되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임	I부 오전 9시
예 배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I부 오전 11시
예 배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외시는 길

